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은 죽고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신이 살던 유대 땅에 흉년이 거두어지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착한 며느리 룻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진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룻기의 말씀이 효(孝)에 관한 말씀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말씀은 효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효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효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의 초점이 효부 룻에 맞추어지면 정작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한 사실을 염두 해 두시고 다시 룻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는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우연히'와 '마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만남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소문을 들었고 룻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면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2:12)."

성경은 이방 모압의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는 단순히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룻은 이방 모압 족속 출신이었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무를 자인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수확할 때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 갔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꺼이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일 후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로 룻기를 마치면서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룻기 맨 처음 1장1절에는 이 룻기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 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시대였는데 지금 룻기도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 사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던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 이방 모압의 땅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괴로움에 처한 것을 우회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기근뿐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로 룻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윗을 낳았더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만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주시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이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시야는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분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그 분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